

2005 지방재정 세미나

# 환영사

김태호

(경상남도지사)

아름다운 바다의 도시 통영에서 2005년 지방재정세미나를 개최하게 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며, 여러분들의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먼저 세미나를 준비해주신 조기안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이사장님과 운영진 한국지방재정학회 회장님, 그리고 지방재정개혁에 대한 관심으로 귀한 걸음을 해 주신 오영교 행정자치부장관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오늘 주제발표와 토론을 맡아주실 분들에게 특별한 감사와 함께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선진 한국’으로 가기 위해서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저마다의 경쟁력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재정분권 등 지방재정 개혁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특히 재정자립도의 향상과 총조세중 지방세가 차지하는 비중을 확대해 가는 것이 무엇보다도 시급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의 고민과 수고를 모아 ‘지방재정 개혁의 올바른 모델’을 만들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지금 우리道는 ‘남해안 시대의 개막’을 선포하고 착실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관행과 관습의 눈으로 보면 남해안은 한반도의 끝, 유라시아 대륙의 조그마한 모퉁이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세계지도를 거꾸로 놓고 보면, 즉 새로운 눈으로 보면 남해안은 무한한 해양으로 나아가는 관문이 되고, 대륙과 해양세력을 연결하는 요충지가 됩니다.

‘남해안 시대의 구현’이란 동북아 경제권의 부상이라는 세계사적 조류와 남해안의 지경학적 잠재력을 모아, 이 곳 남해안에 동북아의 물류, 산업, 관광, 문화를 선도하는 새로운 해양경제축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경상남도과 부산광역시, 전라남도가 함께 추진하는 남해안 시대 프로젝트가 대한민국의 번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짧은 기간이지만 통영의 푸른 바다가 여러분들에게 위안과 새로운 힘이 되기를 기원하며,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방문을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2005. 7. 7

경상남도지사 김 태 호